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프리미엄·신모델 라인’ 재편

가전제품 생산물량 재배치 등 추진
냉장고 일부 구모델 해외 이전 검토
연말까지 모터공장 등 라인 최신화
광주시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고부가 프리미엄과 신모델 가전 위주로 생산물량 재배치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21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일부 구형모델의 멕시코 이전 생산과 관련, “광주사업장의 시설과 생산 캐

파(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올 연말 라인 최신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가전 전략에 따라 물량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구형모델은 현지(해외) 생산으로, 대신 프리미엄모델과 신모델은 광주 생산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의 세탁기 물량과 중국의 건조기 물량을 광주로 이전해 생산하고 있다.

또 차세대 가전의 핵심인 모터공장도 광주에 재배치한 상태다.

광주시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상생 강화를 위한 삼성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협력업체 지원 펀드 활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가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가전 신사업 기회 발굴, 커넥티드 리빙분야 사업 진출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페이스북에 “삼성전

자 광주사업장이 커지고, 광주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협력사, 그리고 광주시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메이드인 광주 삼성 프리미엄 가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전 세계 모든 가정의 주방과 거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국내외 11개 가전공장의 생산계획은 고객 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산 거점간 물량 이동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광주에서 생산하던 미국향 냉장고 일부 구형모델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검토중인 동시에 동시에 신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 물량 조정은 협력사들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광주사업장은 앞으로도 생활가전 사업의 모터공장으로서 고부가·프리미엄·신모델 위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 캐릭터 ‘오동이’ 팝업 오픈

광주신세계가 오는 31일까지 본관과 신관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에서 인기 캐릭터 ‘오동이’ 팝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동이의 아르바이트’를 테마로 열리는 이번 팝업에서는 오동이 중형 인형(1만9900원)을 비롯해 오동이 바디필로우 똥쿠션(2만9800원), 데코 스티커 세트(4900원), 피규어 젤렌 세트(5900원), 연필꽂이(1만1900원), 타월 4종(각 8500원) 등을 판매한다. 또 오동이 캐릭터로 꾸며진 포토존을 마련해 구매 고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슬림한 디자인을 결합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Galaxy Z Fold Special Edition)’ (사진)을 오는 25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10.6mm의 두께와 236g의 무게는 ‘갤럭시 Z 폴드6’와 비교했을 때 1.5mm 얇고 3g이 가볍다.

슬림한 디자인에도 하드웨어는 한층 강력해졌다. 갤럭시 Z 시리즈 최초로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돼 더욱 생생하고 선명한 사진과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16GB 메모리를 탑재해 폴더블에 최적화된 ‘갤럭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펼쳤을 때 사용 가능한 메인 스크린은 20:18 비율의 203.1mm(8.0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넓은 대화면을 지원한다.

접었을 때 사용 가능한 커버 스크린의



경우 21:9의 비율의 164.8mm(6.5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더욱 자연스러운 바(Bar) 타입 제품과 같은 사용성과 그립감을 선사한다.

제품 판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삼성닷컴과 이동통신3사의 공식온라인몰(T다 이렉트샵, KT닷컴, 유플러스닷컴)을 통해 시작된다. 가격은 278만9600원이다.

오는 12월31일까지 제품을 구매하고 개봉한 고객들에게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 경험을 확장하는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버즈3 프로, 갤럭시 탭 S10 울트라 제품의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박소영 기자

광주 중소기업, 오사카 선물용품 전시회 ‘수출 성과’

광주상의, 7개 지역기업 참가 지원
수출상담 191만불·계약 126만불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의 수출지원 사업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개최된 ‘2024 일본-오사카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Life Style Week Osaka)’에 광주지역 기업 7개사 참가해 수출상담액 191만달러, 수출계약 126만달러의 성과를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시관 메인위치에 광주관 전용부스를 설치해 내방객의 관심과 집객효과가 높았으며 일본 현지바이어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 니즈를 맞춘 제품이 다수 출품돼 큰 호응을 받았다.

전시회 출품제품으로는 ‘지외이테크의 저주파 맛사지기기’, ‘쥘나인원코스메디의 화장품’, ‘정린네추의 식물원예용 LED조명기기’, ‘비스킷웍스의 캐릭터 및 협업문구용품’, ‘쥘셀핏의 건강기능식품’, ‘스튜디오공일오의 친환경 디자인가방’, ‘엔공구의 세차용품’ 등 총 7개 기업의 다양한 제품이 바이어들을 만났다.

특히 쥘셀핏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우



광주시의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2024 일본-오사카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Life Style Week Osaka)’에 광주지역 기업 7개사가 참가해 수출상담액 191만달러, 수출계약 126만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수성을 입증받아 중국 왕홍의 실시간 라이브방송이 현장에서 진행돼 30분 방송에도 불구하고 9000달러의 수출계약이 이뤄지며 인기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스튜디오공일오의 경우 친환경가방제품의 인기로 일본내 제조원사와의 MOU 체결과 백화점 입점 제안 등을 받았으며, 엔공구의 경우 일본내 대규모 매장의 납품제안을 받아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등 참여기업 다수가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원가상승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대규모 전시회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에도 광주시와 협력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이노뷔’, 전기차 레이스서 성능 입증

현대N페스티벌 등서 우승
고속 주행 접지력 등 탁월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레이스 타이어 ‘이노뷔(EnnoV)’를 장착한 레이스 선수들이 현대N페스티벌 eN1클래스에서 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9일~20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7, 8라운드에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와 금호 SL모터스포츠팀의 이창욱 선수가 주행 능력과 타이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임과 동시에 전 세계 최초로 레이스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다. 특히 이번 클래스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스카인 ‘IONIQ 5 eN1 컵’가 사용,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스 타이어 이노뷔가 장착됐다.



이번 대회에서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츠팀의 이창욱 선수가 8라운드 포디움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 올해 금호타이어와 후원 계약을 체결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가 7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며 누적 포인트 1위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후원 계약을 통해 2024시즌 동안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 레이스카와 드라이버 수트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적용한다.

이노뷔(EnnoV)는 금호타이어의 최첨단 기술이 함축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7라운드 우승을 차지한 박준의 선수는 “결승전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경기 내용을 떠나 7라운드에서 포디움 정상에 오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8라운드 우승을 차지한 이창욱 선수는 “지난 6라운드에 이어 8라운드에서도 포디움 정상에 설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금호타이어가 내구력이 좋아 여유 있게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남은 레이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뷔(EnnoV)’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또한 이노뷔(EnnoV)를 통해 기존 EV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차세대 모빌리티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

